

## 한자 퀴즈 (猜字谜)

답을 살짝 가리고 맞춰보세요!

1. 1더하기 1은?

【一加一等于】

(王)

2. 일곱 사람 머리 위에 풀이 나면?

【七人头上长了草】

(花)

3. 계속 천둥 (雷) 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总有雷但不下雨】

(田)

4.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으며, 밝으면 있고 어두우면 없는 것은? 【前有后没有, 明有暗没有】

(月)

5. 이 글자에는 가로획 하나, 세로획 하나, 위 아래로 여덟 팔자가 들어갑니다. 밥 먹을 때 빠지지 않는 이것은?

【此字一横一竖, 上下放着两个八, 吃饭少不了它】

(米)

6. 1. 나무 목(木)과 입 구(口)로 만들 수 있는 한자는?

(呆, 杏, 束)

7. 화살이 마음을 관통하면?

【一箭穿心】

(必)

8. 4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 가로획도 곧은 획도 없어요. 엄마는 모르고 아빠는 웃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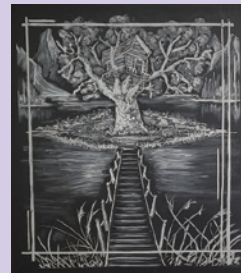
【一字有四笔, 没横也没直, 妈妈猜不着, 爸爸笑嘻嘻】

(父)



나는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은 나를 위해 열려 있다.

## 상급과정



# 4



## 9학년

# 농업실습

상급 역사 교사 이진형

“우리는 이제 상급 실습을 갑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업실습이에요.”

9학년 학생들은 농업실습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놀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

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처음 상급에 올라와 실습과 여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풋풋함이, 며칠간의 실습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농장은 이런 곳이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농업실습의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hing에 있는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지가 다가오는 더운 6월 여름.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고춧대와 씨름을 했습니다. 두둑을 단단히 하고, 끈과 끈을 연결합니다. 고추가 자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틸틈이 모종을 심어보고 화단도 가꾸어봅니다. 그리고 유기농에 대한 배움을 갖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음에도 농장에는 즐거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거칠 때마다 농장의 생명은 더욱 힘차게 자라남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의 농업실습을 돌아보면, 자연 속에서 땅에 발을 딛고 자연과 대화를 나누었던 농업실습은 너무나 매력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처음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힘들지만 가 볼 만한 실습이구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농업실습에는 오랜 친구들이 있고, 나와 함께 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학생들은 농장의 삶 속에 하나둘씩 빠져들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자신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밤이 되면 별을 보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 일을 하고, 저녁이면 쉼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이곳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와 사춘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커다란 불꽃을 피우며 원시의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는 이곳, 자연과 나,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마음속 열정이 장작불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찰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 남아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2주간의 농업실습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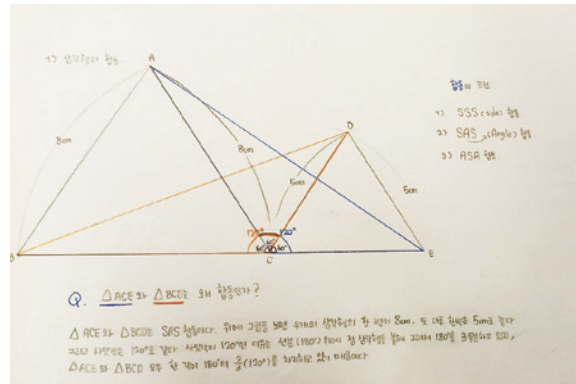




2학기 기하에포크

# “끈질기게 생각하고 명쾌하게 설명하라!”

끈기와 논리를 목표로 하는 에포크입니다. 더불어 담임과정에서 익혀온 기하를 기본 용어부터 명쾌하게 ‘정의(定意)’합니다. 작도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에포크 시간 중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왜?’입니다. 작도와 함께 증명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칠판에 나와 직접 설명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논리적인 힘이 더욱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서로 다른 세 점  
 2. 한 점 + 한 직선  
 3. 평행한 두 직선  
 4. 만나는 두 직선

1-10. 삼각대가 평면을 이루는 이유

삼각대 다리 하나가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삼각대에는 점이 세 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점 1개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보자. 다리가 하나인 거치대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점 하나를 지나는 평면과 직선은 무히 많기 때문에 잘 서 있는 것이 힘들다. 그런 다리가 2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은 1개이지만 그들 지나는 평면은 무히 많다. 무히 많을 수록 하나의 평면에 서 있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삼각대를 한번 살펴보자. 삼각대는 어느 공간에 점을 찍어도 하나, 단 하나의 평면만이 형성된다. 이것은 직접 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각대는, 점 3개로 형성된 평면에 반드시 다른 공간에 있는 점이 나온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 (점 4개 모두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걸그런 거칠 것이다.

여러 방향으로 흔들림      흔들리지 않음      다리 하나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11. 선분과 각



##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서: Between Scylla and Charybdis

영어 교사 강은주

상급의 첫 학년인 9학년은 상급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세 번째 인생, 7주기의 초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리 상태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처녀이지만 하체는 여섯 마리의 사나운 개가 삼중의 이빨을 드러내고 짓어대는 모습을 가진 스킬라와,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인해 하루에 세 번 바닷물을 들이마셨다가 토해내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 근처를 지나가는 배는 어김없이 난파시켰다는 또 다른 바다 괴물 카리브디스가 지키는 해협과 같이 넘치는 상상력 안에서 걱정적이고 불안합니다. 이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아야 했듯이, 이 시기의 학생들 또한 타고난 판단력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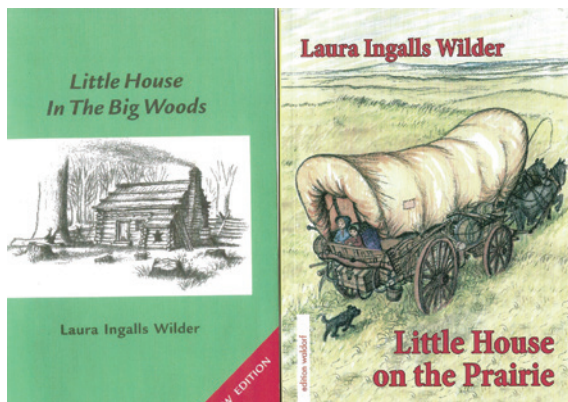


9학년 영어 시간에는 자기만의 언어적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삶의 전 과정과 생생한 경험이 담긴 글을 읽으며, 삶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자신의 삶과 시공간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9학년은 신체적으로 완성된 머리가 사지와 연결되는 발달적 특징이 있는 시기로서, 사지를 사용해 세상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활동의 하나로 언어의 골격을 제공하는 문법 수업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언어의 골격을 이루는 영문법의 규칙과 구조를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찾아내고 적용하며 영어에 대한 이해와 정확성을 높입니다. 또한, 위 두 가지의 수업 안에서 열정과 유머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와 흥미를 일깨워 개별화된 어휘와 문법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 학교의 9학년 영어 수업은 1800년대의 미국 개척 시대에 삶을 일구는 한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는 ‘Little House on the Prairie’와 ‘Little House in the Big Woods’를 집중적으로 읽으며 내용 이해와 함께 언어적 규칙을 인지하는데 그 목표를 둡니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시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한 가족의 삶을 어린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경험하며 현재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시대의 한 가족의 일상과 관련된 어휘를 익히고, 반복되는 패턴의

구문 연습과 독해 질문을 통해 문법을 습득하고,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으며 전체 내용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며 발음과 억양 연습을 하고, 글 속의 문장을 발췌하여 받아쓰기를 하며 듣기와 철자 훈련도 합니다. 특히 8학년까지의 영어 학습은 자연스러운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면 9학년에서는 문장 완성, 번역, 영작 활동 등을 통해 한국어와의 어순과 구조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여 언어 사용에 있어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학교에 온 후 2년을 함께했던 현재의 10학년은 상급으로서의 첫해인 9학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영어 수업 시수가 일주일에 3회밖에 되지 않는 여건 속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독해 능력과 스펠링 능력을 키우는 데 특히 집중하였습니다. 말하거나 쓰기 등을 충분히 연습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쉽지만 읽기 능력이 먼저 갖추어지는 것이 향후 상급에서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고, 지난 2년 동안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함께하고 교감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학습과 관련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욕심도 컸기 때문입니다. 과제도 많았고 시험도 많이 보며 학생들을 압박하기도 하였지만 지난 겨울방학 전 수업에서 학생들의 문장 독해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했던 번역 연습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우수한 수행력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받아쓰기도 거



의 모든 학생이 90프로 이상의 수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0학년에서는 저와 다른 감성과 능력을 갖추신 선생님과 또 다른 분위기의 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의 모습이 훨씬 더 기대됩니다.

The image shows a crossword puzzle worksheet. The title is 'The Stone - Crossword Puzzle'. It includes a crossword grid with numbers and a list of clues. The clues are:

- 1. To attract the pig. ( )
- 2. There was an empty because the first bear read. ( )
- 3. The bear read was hanging from, so it could last for a long time. ( )
- 4. The first stone every morning was meeting. ( )
- 5. He made father on Sunday. ( )
- 6. He made water on Saturday. ( )
- 7. He found father on Wednesday. ( )
- 8. He didn't do anything on Tuesday. ( )
- 9. He made dinner with soft food for the girls to play with. ( )
- 10. He made dinner with soft food for the girls to play with. ( )
- 11. When he had got and animals only he came back home only. ( )
- 12. Sometimes he didn't get anything from the house. ( )
- 13. The family had a milk dog and a horse too. ( )
- 14. The man often sitting in her living room at night. ( )
- 15. The long house on the wall. ( )
- 16. Other families have the garden for an animal because he didn't have a gun. ( )
- 17. The garden almost caught Grandma. ( )
- 18. Grandma was on another stone and could be the garden. ( )

Below the clues are sections for 'ACROSS' and 'DOWN' with a grid for writing answers. There is also a 'Check it' box at the bottom right.



**WINDOWS OPEN WIDE**

**MY HOUSE WAS WARM AND COZY  
I COULD STAY INDOORS ALL DAY  
COULD STAY IN BED AND READ A BOOK  
OR FIND A GAME TO PLAY**

**BUT I PULLED BACK THE CURTAINS  
THREW THE WINDOWS OPEN WIDE  
LEANED OUT, BREATHED IN THE FRESH NEW AIR  
OF OTHER WORLDS OUTSIDE**

**I TURNED THE KEY AND RAISED THE LATCH  
AND OPENED WIDE THE DOOR  
AND STEPPED INTO THE MORNING LIGHT  
AND STARTED TO EXPLORE**

**AND I FOUND MANY HOUSES  
AND A NAME ON EACH OF THESE:  
'GREEK', 'FRENCH', 'ITALIAN', 'ARABIC',  
'DUTCH', 'RUSSIAN', 'JAPANESE'**

**I WONDERED WHICH TO VISIT FIRST  
DECIDED TO BEGIN  
WITH THIS ONE - SO I RANG THE BELL  
AND I WAS WELCOMED IN**

**"GO TO THE WINDOW, LOOK OUTSIDE,"  
I HEARD A STRANGE VOICE SAY...  
I DID - AND SAW A WHOLE NEW WORLD  
IN QUITE A DIFFERENT WAY**

**AND IN THAT BRIGHT NEW WORLD, BEYOND  
SPIRE, MINARET, TOWER AND DOME  
I SAW - IN QUITE A DIFFERENT WAY -  
MY OWN FAMILIAR HOME**

**화학\_10학년**

# pH 0 ~ 14, 무지개 빛깔 그 어딘가에서

상급 화학 교사 손에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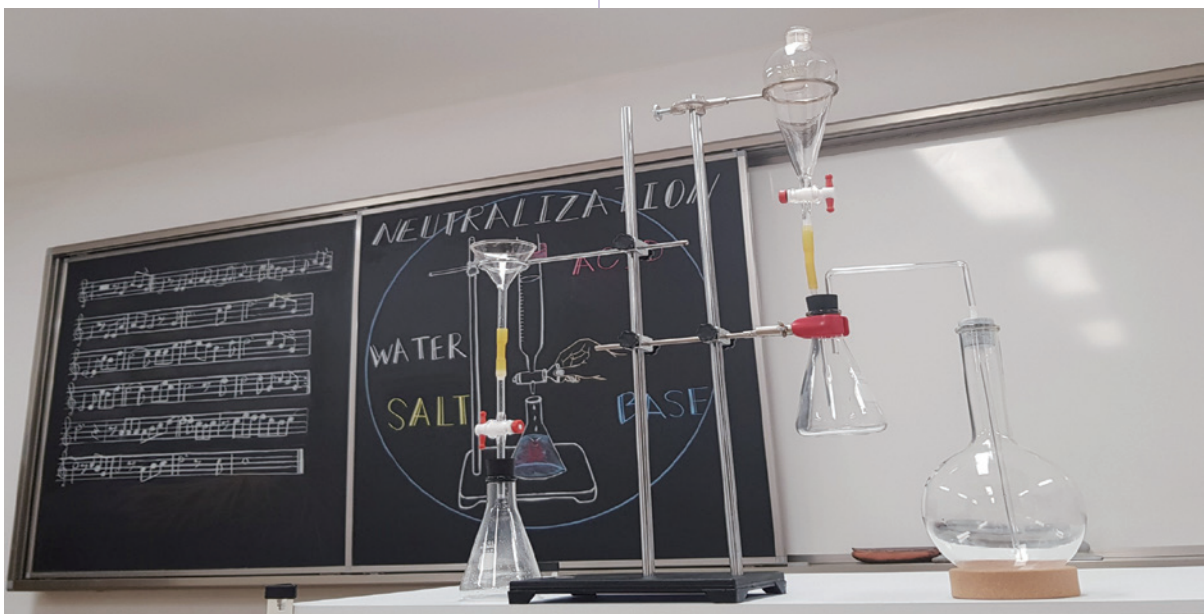
“물 한 잔 마시고 수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10학년들은 자신에 대해 훨씬 편안해지고, 개념적으로도 명료해졌으며, 자신의 인식 능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넓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반면, 교사는 신이 나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해석해서 교훈을 주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현상학적’ 접근이야말로 교사의 어떠한 ‘가르침’보다 훨씬 풍성한 내적 변화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 외부의 강제에서 내면의 자유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각 학생의 개별성이 활동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발견이 이루어지며 사고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고의 명확함은 판단력 증가로 이어지며 차츰 학생들이 호감과 반감에 머무는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각 활동에서 분석적인 작업들을 통해 스스로 법칙을 찾아내며 객관성을 확보하고 앞에 대한 안정감을 키워나갑니다.

10학년 화학 수업은 산과 염기를 주제로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을 이해하고 다양한 산과 염기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염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실험들을 토대로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세운 법칙을 통해 실험이 진행되기 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10학년 화학 에포크\_첫 시간

선생님 :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물 한 잔 마시고 수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학생들 : (어리둥절하며) 네.

*선생님이 컵에 물을 따르자 투명했던 물이 컵 안에서 붉게 변한다.*

학생들 : (놀라며) 선생님! 물 색깔이 변했어요!

선생님 :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물을 마시고 싶은 학생이 있나요?

학생들 : (여기저기 손을 들며) 저요! 저요!

선생님 : 그럼 한 명씩 선반 위에 있는 컵을 들고 나와서 물을 받으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컵에 물을 따르자 투명했던 물이 컵 안에서 각기 다른 색으로 변한다.*

학생 1 : 선생님 물이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학생 2 : 나는 노란색으로 변했어, 어! 너는 초록색으로 변했어!

학생 3 :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마셔도 돼요?

선생님 : (웃으며) 글썸,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액체니까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자! 컵을 든 친구들 모두 모여 볼까요?

*각기 다른 색의 물이 담긴 컵을 든 학생들이 한자리로 모인다.*

선생님 : 이제 다시 모두의 물을 모아봅시다. 선생님이 먼저 여기 있는 커다란 비커에 컵에 물을 쏟을게요.

*커다란 비커에 쏟은 물이 다시 처음처럼 투명해진다.*

학생들 : (신기해하며) 뭐야! 다시 물이 투명해졌어!

선생님 : 다른 학생들 컵에 들어있는 물도 비커에 모아볼까요?

학생 1 : 제가 먼저 넣어볼게요. 뭐지? 물이 다시 투명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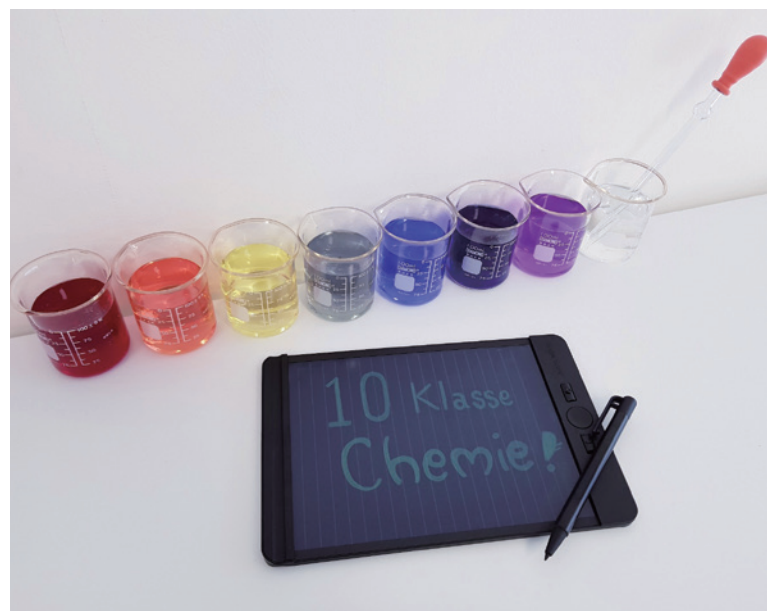
학생 2 : (컵의 물을 아주 천천히 따르며) 어떻게 색이 다시 투명해지는 거야?

학생 3 : (신중하게)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다시 투명해지다니.

*모든 컵의 물을 비커에 쏟아도 여전히 비커 안에는 투명한 물만 모여 있다.*

학생들 :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 글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 4주 동안의 화학 에포크 시간을 모두 마치면 오늘 이 현상을 모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10학년 화학 에포크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 문학을 향유하는 10학년 문학사 에포크

상급 국어 교사 박경미

학생들은 잔뜩 긴장하고 수업에 임합니다. ‘어려울 거다’, ‘바벨 거다’, ‘숙제가 엄청 많을 거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수업에 들어오지만 막상 시작하면 엄청난 호기심을 보이며 집중합니다. 문학과 세계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이전 사조에서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며 토피바퀴처럼 연결되는 사조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은 ‘호기심’으로 발전했고 ‘호기심’은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동의 작품을 보면서 서로 다른 질문을 갖고 해결하며 스스로 사조의 특징을 찾았고 개별의 작품을 읽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삶과 생각이 존재하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에포크 말미에 계획된 문학사 발표를 위해, 수업을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작품을 읽어 내고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문학사 발표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문학이었기에,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고른 책이었기 때문에 작품에 공감하며, 또는 의아해 하거나 비판하며, 어쨌든 즐겁게, 개별 작품을 읽었을 것입니다.

2021학년도 문학사 에포크에서 한 학생은 리얼리즘 <폭풍의 언덕>을 읽고 느낀 불편함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원래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인물의 결점만 세밀하게 표현된 것을 보니 거북했다는 감상으로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한 학생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아직 모태 솔로로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역시 솔직한 심정을 가

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로샤’의 얼굴을 상상하며 한 편의 인물화를 그렸고, 작품 속 인물의 꿈의 내용을 시로 창작하며 능동적인 독서를 해냈습니다. 한 남학생은 <테레즈 라캥>을 통해 본능과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던 등장인물의 행태를 ‘역겹다’라고 표현하며 사회적 도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과 관련한 예술 작품으로 작품 속 여자 주인공의 혼란과 욕망, 방향의 심리를 고스란히 담은 인물화를 그려서 소개하였습니다. 다른 학생은 작품의 내용보다는 사조에 중점을 두어 <부활>의 리얼리즘적 특징을 분석해 냈고, 사실주의에 입각한 문학사 포스터를 만들어 작품과 연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하고 특징을 찾고 분석함으로써, 문학의 사적 흐름을 배웠고 세계사적인 이해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삶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어디에도 없는 감상문을 발표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냈으며 자신의 인식에 대한 자신감과 편안함을 맘껏 펼쳐냈습니다. 또한 시, 그림, 독백 연기, 소설 등의 예술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풍요로운 정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잘 끝내서 좋았다’, ‘고전주의, 낭만주의를 배워서 유익해진 느낌이다’라는 소감을 남길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우리 상급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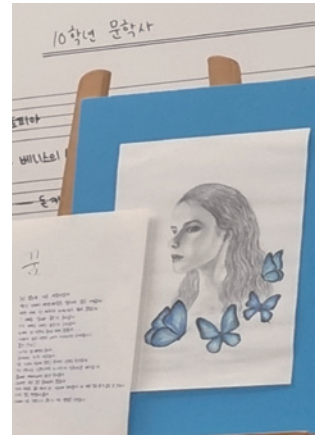
## 학생들의 예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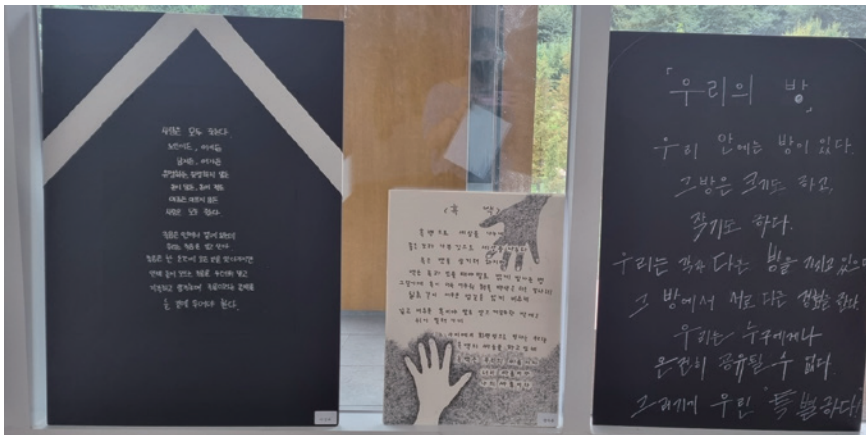
문학사 포스터  
사실주의 화가 작품 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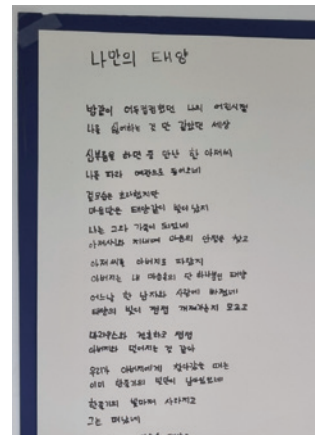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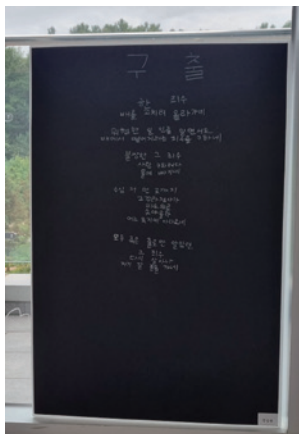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로샤, 그리고 베르테르의 꿈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한 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베니스 상인>, <나자>



<레 미제라블> 감상 시



<레 미제라블> 감상 시



<테레즈 라캥>의 여 주인공(좌측).  
<주홍글자>의 딘스데일 목사가 회개하는 장면(우측).





# I Look into the World

영어 교사 박지영

I look into the world. (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In which the sun is shining, in which the stars are  
sparkling, in which the stones repose...

우리는 이 시를 늘 낭송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영어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렵지만 언젠가는 다가 올 그날을 기대하며 매 수업을 열어봅니다. 표현하기 힘든 것들을 외국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외국어를 쓴다는 건 매우 어렵지만 외국어는 또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Drama 수업에서는 다른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외국어 대사를 외우며 대본의 리듬을 파악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습득하며 우리는 연극에 대한 전문성을 따지기보다는 새로운 언어에 집중합니다. 의상, 메이크업, 무대, 음악 등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 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SOS를 합니다. 학생들은 이런 현실에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지만 수차례 실패도 하고,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피곤함과 긴장감이 더해져 학우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이해하려 노력하며 웃고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견 충돌과 서로가 예민한 상황이 계속됐고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 발표하기 3일 전 수요일에 모두가 집중하여  
열심히 임했고 1시간 10분이라는 공연 시간이 나왔다.  
나는 이 시간을 딱 보고 너무나 기뻐고  
안 되는 건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남지훈의 The Wonderful Wizard of Oz  
연극을 끝마치고 나서...'*

실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어 대본을 제공하고 발음을 잡아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지만 정작 연극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연습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의 시간 뒤에서 지켜봐 주는 역할만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지지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모든 선택과 행동은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때문에 어떤 의상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배경이나 소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지는 않지만 약속하게도 대신 만들어 주거나 구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는 학교의 특성상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고 특수효과 소리마저도 학생들이 머리를 써서 자연이나 악기를 통해 만들어 내야 합니다. <'Ali Baba and the Forty Thieves'에서의 'Open Sesame!'를 외치면 동굴 문이 열리는 소리.> 이 소리 하나를 위해 며칠을 고민하던 음향팀은 큰 대야에 벽돌을 넣어 굴리

는 아이디어를 짜내었습니다. 이 역시 뜻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 추운 야외에서 돌을 빼고, 넣고 하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가장 크고 확실한 소리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어 대사를 외우기도 버겁지만 이런 세심한 것까지 다 챙기며 학급원들은 함께 극을 100%로 만들어 냈습니다. 내가 영어를 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에 찬 학생들과 또 반면 영어 수업에서 왜 연극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매번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나갑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기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무대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영어 수업에서는 초롱초롱한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는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영어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왜 해야 하지?” 이었고

어쨌든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어떻게 대사를 외우지?”라는 걱정이 컸다.

...

이제는 아이들과 장난으로

우리가 했던 대사가 튀어나와 웃고는 한다.

처음에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달리

나에게는 의미 있고 영어라는 언어가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게 해주었다.

‘윤준우의 The Wonderful Wizard of Oz

연극을 끝마치고 나서...’

어렵겠지만 영어로 연극을 한다는 것! 참 끌리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외우면 할 수 있겠지, 우리 반 애들이 몇 명인데 이걸 못해내겠어!’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막상 대본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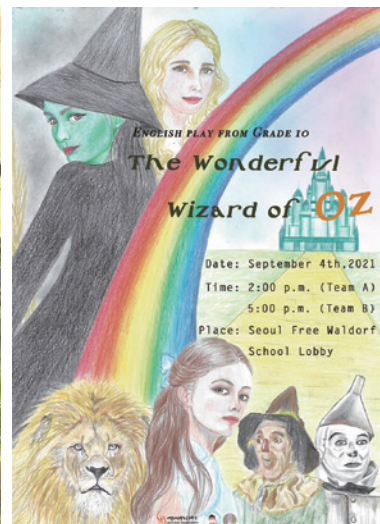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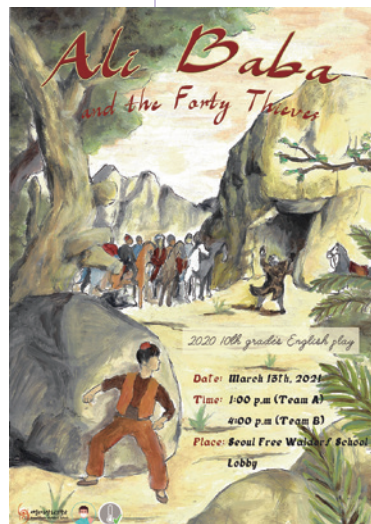
배역이 정해지면 처음 했던 기대보다는 수많은 대사에 대한 우려와 압박이 몰려옵니다. 선생님은 내가 대사를 외웠는지,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서로를 확인합니다. 한글로 대사를 외우기도 힘든데... 영어를 그렇게 쉽게 외운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그렇게 오늘도 나는 대사를 외워 봅니다. 그 긴긴 영어 대사를 다 외운 나 자신... 칭찬합니다! 대사만 외우면 끝일까 싶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내 대사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의 대사까지 외우고 상황을 파악해야 극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을 100%로 만들어 내면 연극 선생님께서 110%로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뿌듯, 시원 섭섭 그리고 아쉬움으로 무대에 오르고 극은 막을 내립니다.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과  
남자인 제가 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어 연극은 신선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화의 Ali Baba and the Forty Thieves를  
끝마치고 나서...'*



연극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연극이 끝난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사들은 신기하게도 이후 우리의 일상에 찾아와 무용담처럼 톡톡 내 입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가끔 영어 시간에 극에서 나온 대사와 같은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외치기도 하지요. 'Eeenie Meenie Minie Mo. Who shall be the first to go!'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연극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봅니다.





## 생태실습 11학년

# 작아서 볼 수 없고, 커서 볼 수 없는 세상 그 중간에 서있는 나

상급 화학 교사 손에녹

*“자연을 찾는 외침이 있는 곳에서,  
만물의 신성한 근원을 기억하고  
그것과 합일하고자 하는 갈망이,  
젊음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부터 솟아오른다.”*

2021년 6월 15일(화) ~ 24일(목) [9박 10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주변, 원북면 신두해변,  
신두리 사구센터

1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경계를 실험하고 극한까지 가고자 합니다. 극한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배우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극한의 가치’를 생물학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관찰 가능한 살아있는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역사적 배경과 생물학자들에 대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거시세계에서 미시세계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세포 유기체에서 지구 전반의 환경으로 시각을 옮겨 사실상 생물 전체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11학년의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탐구했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감을 뒤지며 스스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학생들이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근처 보건소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갯벌에서의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학년 학생들은 자연에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신비로움을 느끼며 크고 작은 세계를 경험하고 생태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태안의 자연뿐만 아니라 극지방, 열대 우림, 사막, 천해, 심해 등 직접 경험하기 힘든 대자연의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고 대자연 그 자체만이 줄 수 있는 경이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아울러 인간의 무분별함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 갯벌 속의 나와 너\_진승현

바다의 땅이, 물속의 땅이 주체가 되어 모습을 드러낸다. 걸보기엔 형편없이 보일 수 있어도, 그 속을 헤아릴 수는 없다. 모든 것이 한 꺼풀 덮친 세상을 그대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의 본질은 한쪽 방향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보아야 그것의 부분 중 겨우 일부만을 볼 수 있다.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자. 우리의 본질에 다가서자. 우리는 자연을, 자연은 우리를.

모든 해답은 자연에 있다. 자연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지만 조연의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는 자연 앞에 너무 주연만을 자처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연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

### 마침시\_이민솔

아침 이슬이 내린 풀밭에 서서  
사방에 가득한 안개를 바라보면  
차가운 공기와 아침 향기가 세상과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산의 정상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푸르른 바다와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모래 위에 서서  
수평선 끝에 노을을 바라보면  
시원한 파도 소리와 붉은 하늘이  
우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두운 길 위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과 수많은 별들이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가장 많은 열쇠를 가지기에  
어느 문을 열지 어느 문을 닫을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 알맞은 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밀당의 고수 자기

상급 물리 교사 김명진

학생들을 만나는 첫 시간, '전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교실에서 모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봅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알람 소리가 없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로 시작해야 하는데 엄마도 시간을 모릅니다. 전기밥솥이 없네요. 맛있는 가마솥 밥을 해 먹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시간을 가늠하여 등교를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먼 길을 걸거나 마차를 타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오면 어두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 전기가 없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11학년에서 물리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네요. 온라인 강의나 핸드폰 사용의 갈등에서 해방됩니다!

9학년에서 물리는 눈에 보이는 큰 기계들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증기기관, 열기구 등의 기계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작동 원리를 찾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10학년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의한 힘인 중력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힘의 크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운동하는 물체를 통해서 힘의 변화를 느끼고 예측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관찰하며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1학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힘을 예측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상상합니다. 11학년은 사고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전기처럼 흘러라  
저항을 이겨내고 흘러라!*

*전기는 흐르다 멈춘다지만  
나는 계속 저항을 이겨내고 흘러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많은 곳까지 흘러라!  
나는 전기처럼 흐르는 인간이다!*

*(2021학년도 11학년 이민건)*

전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공기처럼 너무 밀접해서 존재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 전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다면? 정확히 전기적 힘이 사라진다면?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지도 않고, 이 글을 읽을 존재가 없을 겁니다. 컴퓨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적 힘은 단순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발견하고 활용하기 전에도 전기는 존재했습니다. 작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눈에 보이는 물질 모두가 전기적인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물질은 작은 전기적인 힘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물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도 전기적 신호입니다. 이처럼 전기의 힘은 세상을 구성하는 힘이며 인류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작은 세상의 전기는 화학과 생물 과목에서 잘 전달해 주리라 믿고, 물리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익숙한 개념인 전기의 흐름, 전류를 다루게 됩니다. 전류는 유용하지만 위험합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과학은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위험한 전류를 몸소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배운다면 정복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끔따끔한 정전기를 느끼며 쾌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비몽사몽한 몸을 이끌고 커피 대신 정전기 발생 장치를 찾기도 합니다.

전류는 사이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짝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자기’는 11학년 학생들이 매우 설레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자기는 상황에 따라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짜릿한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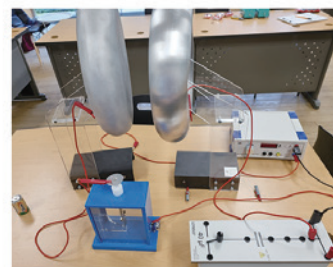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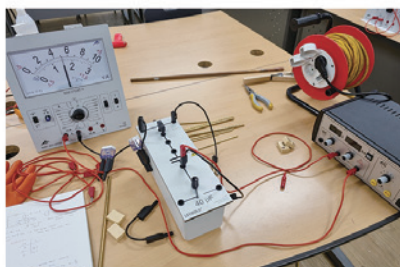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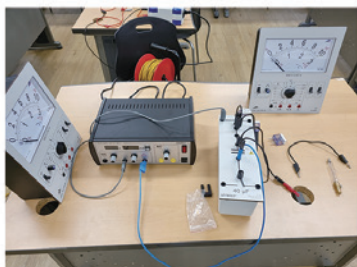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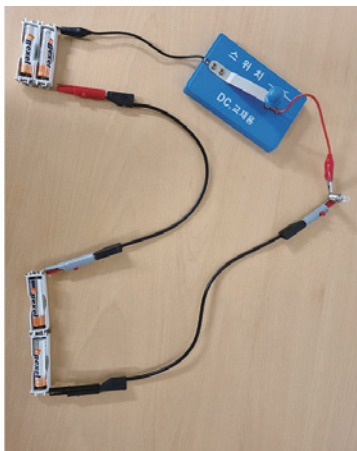
*같은 극이 다가오면 밀어내는 자기  
다른 극이 다가오면 당기는 자기  
밀당의 고수 자기  
(2021학년도 12학년 최동근 최효진 남매의 시 일부)*

11학년 과정을 배우고 나면 전기의 세계가 여전히 어렵지만 흥미로워집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서 생기는 다양한 현상이 눈에 보이는 물체의 운동과 비슷한 원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 커서 한눈에 볼 수 없는 행성들 사이에서의 현상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속 신경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기적 신호가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전파와 비교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년의 수업도 마찬가지로 전자기는 특별히 긴장의 연속입니다. 낮가림이 심한 전기는 쉽사리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결과가 있지만, 실험을 통한 관찰이 어렵습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실험보다 상상에 의지하는 사고 실험이 많아집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그려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움을 잘 가져온 11학년이기에 가능한 시도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잘 만들어냅니다. 교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는 학생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배움을 찾아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만의 답을 찾기도 합니다.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는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밀당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보며 시시각각 변화를 주다 보면 짜릿한 배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11학년

## 음악사 에포크

## 상급 음악 교사 정나래

찬바람이 불고 아직은 어둑한 아침, 에포크를 수업을 하러 음악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낯선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풀리지 않은 목소리지만 여느때 처럼 노래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부른 것)은 음악입니까?”

갑작스레 던져진 교사의 질문에 ‘음악이다’, ‘노래다’ 등의 답변과 함께 학생들의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노래는 무엇입니까? ‘시’도 노래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악입니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3주 동안 이 거대한 질문을 품고 음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이전에 기차놀이를 하며 흥얼거리던 칙칙폭폭 소리가, 소꿉놀이 소리가, 부모님이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엄마의 심장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태곳적의 음악,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음악 또한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기원전 3000년 전 백조의 요골로 만든 피리와 황소 모양을 한 메소포타미아의 리라를 보고, 음계가 있었을까? 조성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음악은 조성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고대 그리스의 악기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디오니시스 축제, 고대 그리스의 선법,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사상을 알아봅니다.

우주의 울림,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듣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모방론, 에토스론에 따라 음악이 영혼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중세에 접어들어 현재 ‘도(Ut)레미파솔라’로 불리는 솔미제이션, 네우마라 불리는 기보법 등이 생겨납니다. 보에티우스의 음악사상을 보니 생각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단선율이며 특별한 리듬이 없습니다. 지금의 음악과 비교해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주의 울림에 맞지 않는 증4도는 중세에 악마의 음으로 불렸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단성부의 그레고리안 성가에 오르가눔이 생겨난 것을 보니 화음이 시작되었구나! 알게 된 것과 동시에 인터벌과 사람의 관계는 무엇인가? 왜 지금의 음악은 7, 9, 11, 13 화음까지 쌓을 수 있게 되었는가? 투르베르와 투르바두르 같은 원조 싱어송라이터들을 보니 역시 음악의 본질은 사랑일까?

2020년 11학년  
윤승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음악 속에 산다.  
그들의 심장이 멈추어 서지 않는 한  
그들이 느끼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순간에 음악이 깃들어 있다.  
시간이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살아 숨 쉬는 한  
지금 여기서 음악으로 산다.

2020년 11학년  
김가은

끝없이 이어지는 풀밭 나는 음악이야  
살포시 내 위에 내려앉는 민들레 홀씨 하나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삶이 고단한지  
내게 닿자마자 고요히 미소 짓네  
바람이 불면 또다시 날아가 버릴 테지만  
바람이 멈추면 또다시 내려앉겠지  
걱정하지마  
나는 그때에도 계속 노래하고 있을 테니  
너는 영원히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야

2020년 10학년  
문시온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사고를 일깨우며 나의 의지를 다지고 나의 몸을 움직이는 그것은 바로 음악이다”

2020년 11학년  
최효진

“음악은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해줄 가장 신비로운 열쇠이다”

악기연주에 현혹되는 것을 좌악시했던 중세와 달리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견으로 악보를 읽고 연주하게 된 르네상스에 접어들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듯합니다. 나뭇 폴리포니와 호모포니의 흐름도 명확해지고 마드리갈처럼 시를 가사로 하는 곡도 있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음악과 시, 음악과 언어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술과 음악의 관계는 어떠한가?

바로크에 오니 그동안 지루하게 여겼던 바흐의 음악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순정률에 비해 단순한 평균율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음과 음 사이, 무수한 음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평균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음악은 어땠을까?

.....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을 현대에 연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음악은 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음악은 재현이 가능한가? 재현과 재해석의 차이는 무엇인가?

음악을 들으면 왜 잠이 오는가?

아날로그와 전자 음악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음악의 본질도 변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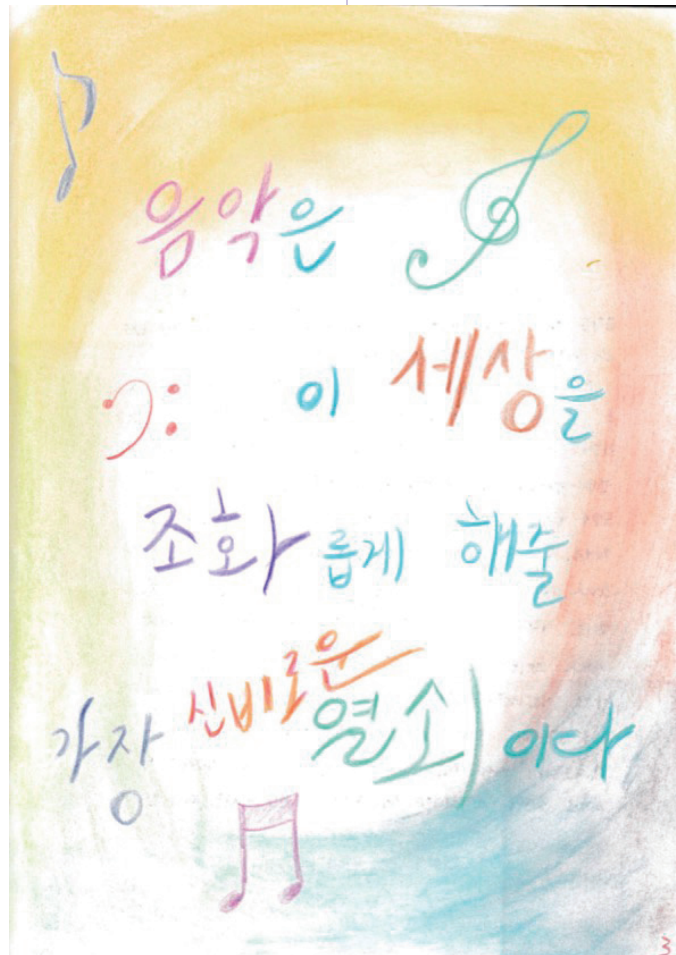
.....

음악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가?



음악사 에포크는 끝이 났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질문을 나눈 이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삶의 질문들 속에서 헤엄

치며 자기 삶의 노래를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Harmonia'를 이루며 누구보다 음악적인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 Heal the World

상급 생물 교사 김민정

단순한 이기심에 기인하지 않은 인간의 소망과 의도는, 더 깊고 넓은 의미에서 자신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상급과정에서부터 서서히 확장되는 책임과 판단의 영역은 학창 시절의 마지막인 12학년에 가장 넓어집니다. 비록 슈타이너의 생애 7주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가 학교에서 완성되지 않지만, 고유한 개인의 발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2학년 학생들은 거대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에 대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환경학은 12학년 동안 배웠던 사회학적, 경제학적,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각 과목과 지식의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학 에포크는 무엇을 다룰까? 학생들은 칠판의 그림을 보며 하나씩 답했습니다. 산업화, 환경오염, 신재생 에너지 등을 유추했습니다. 누군가는 포괄적으로 지구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옳은 대답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포크는 세계화로 시작합니다. 세계화의 상징인 청바지와 Made in World 제품인 아이폰으로 세계의 사회 경제적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와 경제 에포크에서 배웠던 커다란 사건들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세계



화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브레턴우즈 체제와 국제연합의 사례로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기도 하지만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 차에는 시선을 바꿔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바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푸른 대리석 구슬 같은 지구는 무척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요한 지구 위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음을 규정하는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지구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체의 기본 원소인 탄소와 생명의 근원인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대기는 지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지구적인 규모의 탄생과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거대한 시간 속에서 정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주 차는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다루었습니다. 때마침 12학년 환경학 에포크 기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었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해당 협약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는 무엇이며,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과학적 발견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글래스고 기후협약까지 다양한 기후협약들은 우리 모두가 연대한다면 거대한 위기도 헤쳐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 2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활동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드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생산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공유함으로써 생겨나는 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

동의 변화가 궁극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과학연습 시간을 이용한 No 플라스틱 캠페인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앞서 플라스틱의 종류와 성질을 배우고, 학교 차원에서 No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이 많아 정신없었지만 모든 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학생들 에포크 후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환경학 에포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지난 12년간의 학교생활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과목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지구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연결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학은 낯설지만 익숙한 과목입니다. 환경학 에포크는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주간의 에포크의 시작은 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환경학을 통해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연대.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We could really get there, if you cared enough for the living.*

- Michael Jackson 「Heal the World」 -



**12학년 미술 수업****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

미술 교사 이소윤

드디어~!! 이제 조금만 더 다니면 졸업이다.

12학년 학생들은 이런 마음으로 미술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이것도 그려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아 맞다! 우리 9학년 때 배웠던 찰흙도 재미있었는데.. 등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12학년이 되니 학생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도 해줍니다. 우리 학교 미술시간은 기술적인 것을 연마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재미있게만 그리는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미술시간은 그냥 있으면 좋은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발도르프 학교의 예술 수업은 단지 예술성을 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술적인 수업 들을 통해 그 깊이가 다양해집니다. 12학년 학생들은 미술시간에 많은 현상들, 감각 인상 속에서 각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전체에 대한 연관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자신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서로 다른 현상들에 대해 자유롭게 비교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되며 예술적인 본질로 표현해 나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연을 좀 더 객관적인 힘으로 분석해 나갑니다. 이때 객관적인 힘은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연의 분위기와 인간 영혼의 분위기를 연결해 보기도 합니다.

12학년이 되면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있는 자아의 통합적인 능력을 배워나가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석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면의 경험과 직결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12학년의 주제는 인간에 대한 상입니다. 교사로서 이 주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12학년 학생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익숙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후배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익숙한 분위기, 잘 아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과연 우리는 그들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학생들이 놀라워했던 지점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지각이 생각만큼 또렷하거나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것들을 연구하기로 합니다. 12학년은 인간학이 바탕이 되어 인간에 대한 상, 사람의 얼굴을 회화적인 요소로도 연구해 나갈 수 있고 조소적인 요소로도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모습, 주변에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내적인 분위기, 그들의 외적인 분위기, 남학생의 얼굴, 여학생의 얼굴, 눈빛, 눈썹, 코의 형태, 입술의 모양 등 배부를 정도로 스케치 연습을 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리도 눈썹은 짙은지. 평소에는 참 잘 생겼다는 말을 듣는데 막상 스케치로 표현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은 눈썹을 정성을 다해서 한 올 한 올 그려나갑니다. 눈동자를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마치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사슴과 같은 눈망울을 그리기도 하였으며, 너는 누구냐? 하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시간은 아마도 살면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부분은 과연 '건강한 피부색'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피부에는 '영혼의 살아있는 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색의 특성들이 만나 그 중간의 특성을 지니면서 영혼의 살아있는 상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색을 느끼고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영혼의 특성을 스스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친구가 대신 표현해 주기도 하면서 많은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파란색은 인지학 미술 치유에서 영혼의 광채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형태와 공간을 창조하는 힘이 매우 뛰어나서 형태적 측면과 다양한 색조를 연습하는데 적합하다고 말하는데 12학년은 파란색으로 우리의 눈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그려보았습니다. 머리의 형태, 눈과 코가 위치하는 중간 부분,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살펴보면 인간학에서 말하는 사고, 감정, 의지의 연관성이 나타납니다.

12학년은 배움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이 농축되어 인간에 대한 상이 풍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초상화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관찰하고 회화적으로 표현하면서 각자의 모습을 긴 시간 동안 바라다본 학생들! 자신의 의지와 개별적인 창조성으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 12학년 철학

상급 역사 교사 이진형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철학 수업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순간입니다. 수업을 통해 나의 고민들과 나의 가치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철학자의 사유들이 삶의 마중물이 되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삶의 경험을 모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건강한 신체와 영혼을 가꾸기,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삶, 하루 하루 행복한 삶,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삶, 좋아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삶... 다양한 삶의 그림들을 학생들은 펼쳐냅니다.

우리는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 몇 명의 철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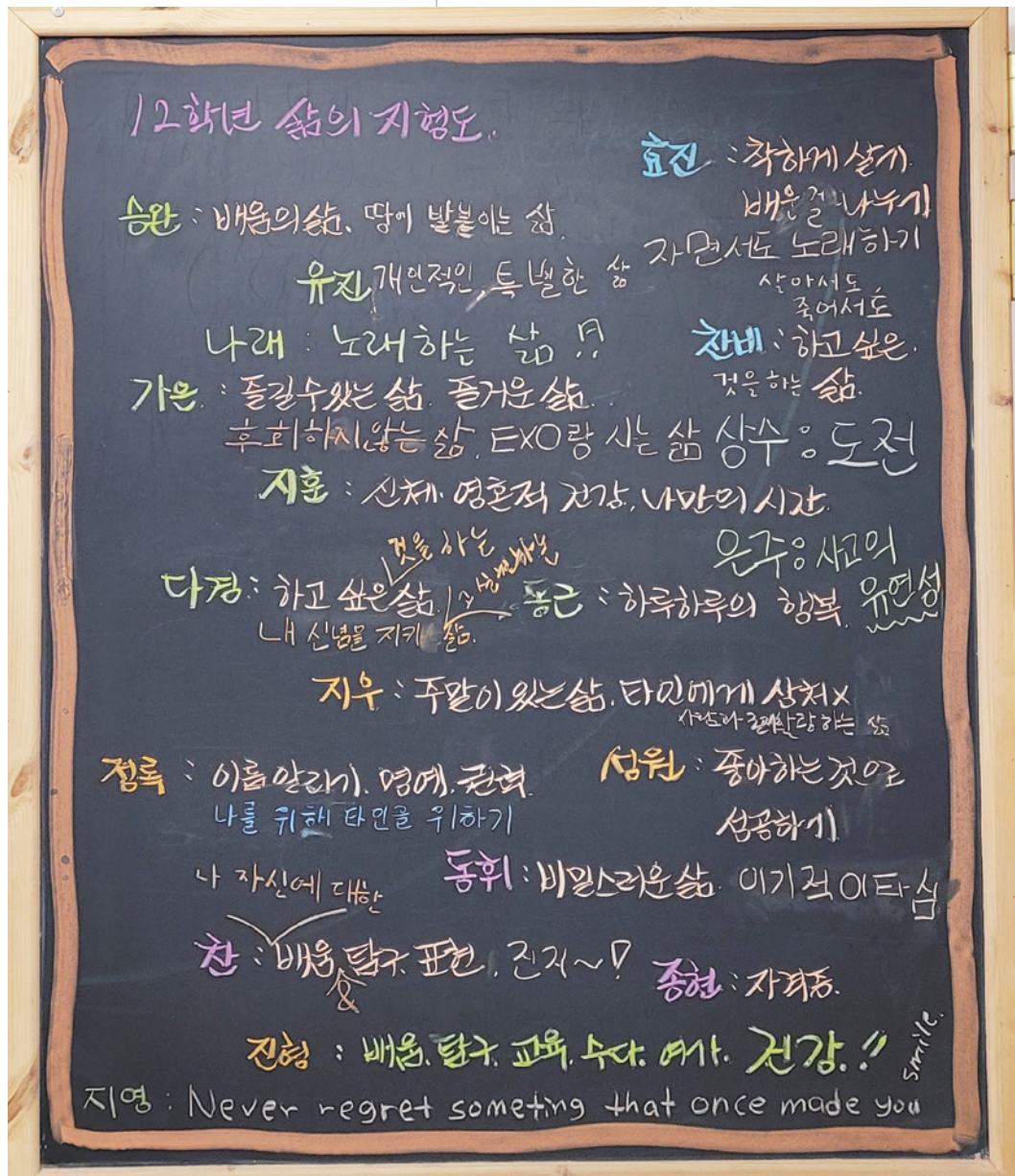
우리를 언제나 힘들게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언을 해줍니다. 이름만 들어보았던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무엇인지 냉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속에서 나의 관점이 하나씩 여물어 갑니다. 과연 그러할까.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깊숙이 철학자의 이야기와 나의 삶이 교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 모든 이야기들은 고정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가치들은 수업의 재료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의 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가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니체의 글을 읽었습니다. 걱정의 단어와 문장 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나는 위버멘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낙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사자가 되어서 낙타도 잃고, 방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정말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가능한 것일까. 무엇이 나에게 진리이고 정답일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학 에포크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의 예술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찰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더 멀리 더 높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라는 점이다.  
 인간에게 사랑 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의 '넘어가는 과정'이요,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니체





## 12학년 석공예

상급 공예 교사 유병현

2021년도 12학년의 석공예 수업은 조금 특별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석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생들과 석공예 수업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화도에서 5일간 숙박을 하며 석공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7시간을 오직 석공예 수업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소 근처 비닐하우스를 석공예 작업장으로 빌렸고 더위를 벗 삼아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수업의 시작은 구조와 형태가 주는 본질적인 힘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강돌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돌을 선택하고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작업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형태에서 오는 느낌에 집중하며 천천히 의지를 가지고 작업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날, 우리는 관점을 돌의 내부에 두고 두개골이 뇌를 보호하는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작업장의 둥근 지붕 혹은 비 오는 날 학교 앞 터널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날, 우리는 관점을 돌의 외부에 두고 골반이 장기들을 보호하는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새의 둥지 혹은 아래에서 위로 따뜻하게 감싼 두 손의 감정을 떠올리며 천천히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이런 작업 속에서 다

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 안의 기하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죽음의 상징인 뼈와 생명의 상징인 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상반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현상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날, 그동안 계속해서 따뜻하게 보호해 오던 감정들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돌 전체로 퍼져나가며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날에는 우연히 작업장에 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벌은 배우지 않아도 알집에 머물면서 가정부가 되어 애벌레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군인이 되어 벌집 주변을 지키고 또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꿀벌이 되어 멀리 이동하며 꿀을 채집하게 됩니다. 이런 꿀벌의 발달은 단순히 역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나비가 되는 변화의 과정과 같고 인간 역시 보이는 부분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인간이라는 변하지 않는 본질 속에서 분명한 변화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기간에 우리의 작품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5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

들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고 학생들은 석공 실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작업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의도를 배제한 체 감정과 의지만으로 작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의도가 아닌 돌의 의도 대로 조각을 해나가는 연습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의 작업이 점점 익숙해져 작업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깊이 있는 작업 과정과 높은 완성도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업 전체에서 다루어졌던 가장 큰 테마는 ‘지각하고 활동하는 인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상을 만나 투사하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어떤 느낌을 주고 우리 안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대상을 만나 내가 투영되어 대상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어떤 느낌을 남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내가 나와 구분되는 무엇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각하고 활동하는 인간’*

*“인간은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함께 활동하는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 못갓춘마디 프로젝트-상급의 첫 4년을 보내고

### ‘양말토끼’ 중 토끼 정나래

2018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상급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금이야 옥이야 키워  
토실토실 영혼의 살을 찌워 놓은 19명의 학생들과 9학  
년을 시작했습니다.  
8학년인 듯 9학년인 듯 해맑았던 9학년을 지나  
끝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터널로 들어가 해매던 10학년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물음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와 11  
학년  
온 세상을 집어 삼킬 듯 자신의 색깔을 뿜어낸 12학년까  
지.  
상급의 시간은 두 배로 빨리 간다는 학생들의 말처럼  
4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2022년 1월,  
14명의 학생이 꽃문을 나서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상급의 전주곡은  
말이의 특별한 힘,  
부모님들의 기도와 지지,  
선배들을 바라보며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을 보낸 후배  
들,  
상급을 세우기 위해 애쓴 동료들의 헌신으로 완성되었  
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시작하지 않았지만 용기 있게 첫 연주



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곡을 들려준 모든 이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더불어 다음 곡의 연주를 기대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열  
린 태도와  
해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배웠습니다.  
이들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  
니다!

깊은 고마움을 담아 제1회 졸업생들에게  
이 노래를 헌정합니다.

\*첫 졸업 학급은 말띠 4명, 양띠 10명의 학생들과 토끼  
띠 지도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양말토끼

정나래

8va - intro

Part. 반 짝 반 짝

13 Pt. 작은 별 따라 여행 하는 저 양떼 들 가까 이 서 보 니 - 말 도

24 Pt. 네 마 리 겁 없 었 던 토끼 한 마 리 함 께 가 고 싶 다 고 말 했 반 짝 반 짝 작은 별 따라 여행 하 - 는 저 양 말

34 Pt. 지들 맘 씨 착 한 양 말 들 고 께 없 었 지 - 그 런 데 사랑 을 노래 하고 - 매 일 끄 덕 었 지 - 나 의 별

44 Pt. 이 게 웬 일 이 야 하 루 도 편 할 날 이 없 네 - 밀 러 오 는 숙 제 에 발 표 을 찾 아 간 다 고 하 는 날 이 렇 게 말 했 지 - 불 꽃 처 럼 서 있 을 게 -

54 Pt. 에 이 별 의 순 간 도 많 아 1. - 바 람 으 로 불 어 올

64 Pt. D.S. al Coda 12. 게 - -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 는 삶

75 Pt. 도 시 라 솔 파 미 노 래 해 - 때 로 는 힘 차 게 때 른 부 드 럽 게 - -

84 Pt. 때 른 누 구 보 다 가 뵈 게 -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 는 삶 도 시

93 Pt. 라 솔 파 미 노 래 해 - 때 로 는 마 이 너 변 주 도 하 고 때 른 반 응 게 도 꺾 참

102 Pt. 아 - 라 라 라 라 라 라 라 - 라 라 라 라 라 라 라 - 도 레 미 파 솔 라

114 Pt. 시 도 하 는 삶 도 시 라 솔 파 미 노 래 해 - 2. outro

124 Pt.























## 상급이야기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10년의 역사



5



## 영구학사 건축,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날들

신재연, 윤우, 윤재 부, 상급 정보학 교사 신의현

단 몇 페이지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영구학사 건축의 역사와 소회를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건축이 마무리된 지 5년이 흘렀지만, 한때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많은 분을 위해 이 글을 적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일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영구학사를 가진다는 건 헛된 희망이다."*

*"그 땅은 어차피 교육 용지가 아니다. 덜컥 건축했다가 소송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건축을 강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말은, 2013년 9월 영구학사 마련을 위한 임시총회 자리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쉽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영구학사를 위한 계획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당장 다음 해의 공간조차 없었던 학교는 기존 학사와 200m쯤 떨어진 곳에 제2학사(감나무 캠퍼스)를 얻게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동력을 모으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너무나 뻔히 예측되었습니다.

양쪽 학사를 위한 인테리어 자금과 매달 나가는 월세





는 밑 빠진 독의 물처럼 소모되고 있었고, 비좁은 제2학사에는 커가는 아이들로 넘쳐나, 바로 세 번째 학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3곳으로 나뉘어야 하는 상황, 월세와 학사 인테리어로 비용이 휘발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상급 과정을 올린다는 목표는 공허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2014년 4월,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되어 오던 장기발전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바꾸고 건축과 관련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선언적인 차원에서 영구학사의 목표를 천명하였으며, 2014년 이사회가 주축이 되어, 2015년 1월 건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특위에는 전년도 의장, 이사진 및 당해연도 의장이 참여하여, 학사가 완공되는 2017년 2학기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특별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

다른 하나는 토지/건축 등의 실질적인 진행을 추진하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에 앞선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것.

당시 학교가 처한 상황과 이 상황으로 버틸 수 있는 임계점, 그리고 건축이 이를 극복하는 대안일 수 있다는 fact에 대한 이성적이고 수치화된 검증,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론 모색 및 중장기 시뮬레이션, 확보 가능성이 있는 토지 후보 탐색과 각 토지에 대한 법적, 물리적 접근 가능성 및 detail 한 실행 방안을 검증하고 또 검증했으며, 이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수정해 나갔습니다.

2015년~2017년 동안 건축특별위원회는 모든 학년의 학년 모임에 직접 참석했으며,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우려와 반대도 많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의지를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90억 원이었습니다.

기초자금과 조합원비를 합쳐 14억 원의 증자돈이 있었고, 구성원의 의지와 금융 대출로 나머지를 메워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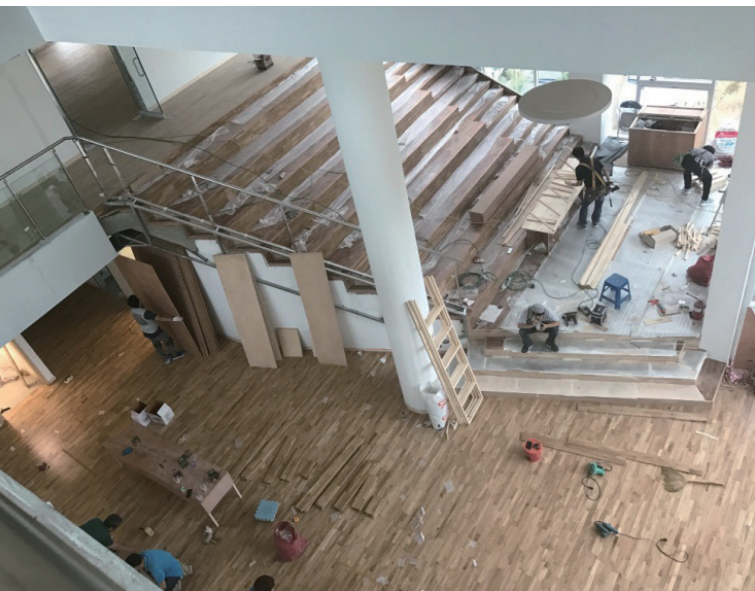
습니다. 건축기금으로 8억 원, 대여기금과 기부금으로 12억 원, 은행 대출로 4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계신 부모님들의 도움과 희생, 그리고 교사/학부모의 직접 노동 등을 통해 11억 원의 공사비를 아꼈습니다.

$$90=14+8+12+45+11$$

하지만 실제 과정은 이런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숫자 하나하나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누군가의 의지와 고뇌와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절한 토지를 찾아 구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  
니다.

위치가 좋고, 법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면적을 가진 땅은 옥길동, 범박동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치가 좋은 땅을 선정  
후,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하고 면적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만난, (그리 친절하지 않은) 공  
무원만 20명은 되었죠. 이들에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나 진심인  
지를 설



명했습니다.

어렵게 이 난관을 해결했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생기면 추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는 밝힐 수 없는 많은 노력도 있었습  
니다.

건축특위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습  
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이견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짓느냐 3층짜리를 짓고 나중에 자금  
이 더 생기면 4층을 올리느냐, 1층 로비의 기둥을 유지  
하느냐 2.5억의 건축비를 추가해서 기둥을 없애느냐, 비  
용 절감을 위해 다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도를 용  
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날 밤을 새우며 논쟁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날들이 2년하고도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2학기, 영구학사에서 서울자유발도  
르프학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권을 전전하며 문전박대를 받  
았던 분들.

좋은 토지를 발견하기 위해, 부천의 거의 모든 부동산  
을 찾아다녔던 분들.

내부 구성원을 머리로, 가슴으로 설득하기 위해 근거  
를 만들고 이를 검증하며 여러 번의 좌절을 느꼈던 분들.

어찌 될지도 모르는 45억짜리 은행 채무 증서에 본인  
의 이름을 올렸던 분.

언제나 마이너스인 자금 관리로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

공사 대금이 몇 달 밀렸을 때, 시공사에 읍소하며 몸으



로 시간을 벌었던 분들.

생업을 제쳐두고 주4일 현장에 출근하셨던 분들.

그리고, 박봉을 쪼개 첫 기부금을 전달해 주셨던 선생님들.

건축 초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쾌척해 주신 독일 발도르프 연합.

건축에 도움이 되겠다며 엽서 판매 대금을 기부했던 학생들.

어려운 환경에 우리 스스로를 믿고 건축기금을 출자해 주신 부모님들.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 학교의 대여기금을 내주신 부모님들.

창고 건물 하나 덜렁 있는 공터임에도 발도르프라는 교육 철학과 초기 선생님 몇 분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던 첫해의 부모님들.

그리고, 건축이라는 대역사에 가려, 어려운 일을 외로이 겪어내고 계셨던 어느 학년의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근원적인 힘을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비가 오면 학교에 달려가는 분들을 말이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가 적지 않고, 학교의 재정은 늘 위험수위에 있으니까요.

여전히 운동장 한 평 없는 학교이고, 공연을 펼칠 강당도 없는 학교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 10년 만에, 영구학사를 마련했고 이곳에 상급 과정을 올려 14명의 자랑스러운 첫 졸업생들을 배출했으며, 우리 학교의 이러한 경험과 역사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현장으로서 영속할 수 있는 크고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면을 빌어

아주 늦었지만, 한여름보다 뜨거웠고 한겨울보다 냉철했던 과거의 우리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 10년의 회고와 우리의 미래

오이리트미 교사 장은심

앞만 보고, 아이들만 보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오다 보니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고개를 넘어 옆 동네 심부름을 갈 때 잠시 쉬었던 고갯마루의 편안함을 우리의 10년 자락에서 즐길 수 있을까요? 땀을 씻어주던 바닷바람, 소나무 숲 사이로 흘러 들어온 봄의 향기처럼 10년의 심표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래도 잠시 10년간의 우리의 행보를 추억하고 위로해봄도 그렇게 사치스럽지는 않겠지요!

2012년 개교식의 기억을 그날의 바람과 햇살과 냄새로 추억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의 깃발을 꽂으며 꽃다운 아이들을 입시의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교육의 상으로 키워내 보고자 하는 희망으로 부모님들, 아이들, 교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33명 아이들의 이름을 <세계 발도르프 학교 학생 명단>에 새기고, 우리학교의 이름을 <세계 발도르프 학교 리스트>에 올리며, 이것이 단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 어딘가에 기록이 되며, 이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애쓴 더 높은 존재들의 노력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해낼 것이라는 뜨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옥길동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취었던 빛은 우리 학교를 “빛의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빛의 아이들”로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옥길동 마당의 싱그러운 흙냄새는 옥길동 한쪽 구석의 소박한 건물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라고 축하하

주며 우리를 격양시켜 주었지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부모님들은 학교를 세우고 지키기에 밤낮없는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는 이제 막 청년이 된 아이들과 학교를 떠나신 분도, 눈물을 뒤로한 채 우리와 긴 이별을 한 분도 계십니다. 학교 초기에는 밤을 새우며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계획과 실천과 소망들을 현실화하였고, 학교 정신을 세웠습니다. 그 시절





의 열정이 날실과 씨실이 되어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왔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엮어내었던 것입니다.

옥길동에서 감나무를 거쳐 지금 우리의 보금자리로 오는 동안의 역사를 10년 안에 이루었다는 것은 세계 발도르프 학교의 역사를 들춰 봐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아이들의 힘입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향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을 앞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외침에 우리는 열심히 따라왔고,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의 역사는 감사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생성과 형성의 과정에는 그 자체에 역사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열 살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커다란 존재의 힘과 보호로 자신의 몸을 세운 후 세상을 마주 서는 그 나이가 된 것과 같습니다. 탄생하기 전부터 열 살이 되기까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우리를 보호했던 힘들은 이제 더 이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서로 더 도와야만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보다 더 마음을 모아 아이들의 고향이 된 학교를 지키지 않으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지요. 해마다 들어오는 작은 아이들이 1학년을 이루고 이 학교에서 성장을 하고 12학년을 마칠 수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혜가 모여져야 할까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룬 것이 큰 만큼 오류와 실책 또한 우리의 것임을 겸허하

게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겠지요. 다행히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잘 읽어내고, 아이들이 비록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백 년을 목표로 한 다음의 10년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랑과 신뢰가 학교의 기본 마음이길 소망해 봅니다.

*내 생각은 학교를 향해 날아든다  
그곳에서 내 몸은  
바른 행동으로 형성된다  
그곳에서 내 영혼은  
올바른 삶의 힘을 위해  
교육된다.  
그곳에서 내 정신은  
참된 인간존재를 향해  
깨어난다.*

R. Steiner 1920년 7월



# 서울자유발도르프 첫 12학년



6



## 10년간의 학교생활을 마무리하며...

제1회 졸업생 최효진

시험을 안 보는 학교라는 말에 혹해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 온 지 10년이 됐다. 이 학교에서의 첫 수업이었던 형태 그리기 에포크를 한 게 몇 달 전 일 같은데 벌써 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졸업생이 되었다. 12학년 초에 자주 친구들과 마지막 수업을 받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하겠다고 이야기 하곤 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자 실감이 나지 않아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가끔씩 숙제를 하다가 졸업을 한다는 것이 문득 실감날 때마다 밀려오는 슬픔을 몰아내기 위해 세상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며 열창을 했다. 그 덕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한 주를 애써 웃으며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겨울 방학식 날 후배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듣자 슬픔을 몰아내려던 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이 학교에서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후배들의 노래를 들으니 갑자기 졸업이 실감 나면서 눈물이 뚝뚝 흘렸고, 각 학년 친구들과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인사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오열을 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몸소 보여준 후배들이기에 더욱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10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다. 수업 내용은 까먹어도 소소한 추억은 잘 기억하는 나에겐 그 이야기가 어제 일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수많은 수업과 자유 프로젝트, 연극, 오이리트미,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얻은 배움도 물론 내겐 너무나 소중한지만, 졸업한 지 한 달 된 지금 이 순간 가장 그리운 건 이 학교에서의 추억이다. 친구들과 생일 노래 준비하겠다고 새벽같이 학교에 나왔던 것, 학교 복도에서 하이톤으로 후배들과 인사한 것, 실습 가서 친구들이랑 밤 산책하고 야식 먹은 것, 각종 공연을 할 때마다 따뜻한 편지와 맛있는 간식을 받았던 것 등등 발도르프 학교를 다녔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추억들이 요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떠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그 흔한 말을 난 이 학교에 와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 받을 사랑을 다 받았다고 해도 과연 이 아닐 정도로 이 학교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날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10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알려주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학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시간이 지나서 읽을수록 일기가 더 재밌어지는 것처럼 이 학교에서의 추억은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걸 것이다. 의미와 가치가 끝없이 더해지는 영원한 추억이 늘 나와 함께하기에 용감하게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어보려 한다. 학생이 아닌 교사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 다시 오는 그날을 고대하며.